



能登上布

歴史と特色

崇神天皇の皇女が能登の鹿西町(現・中能登町)に滞在した折、真麻の上布を作ることを土地の人に伝えたのが始まりと言われている。

元禄年間には、鹿島郡・羽咋郡の女子の主要な副業として織られ、近江商人によって販路が開かれていた。

明治以降も独特の櫛押し捺染や板ヰ、ロール染、型紙捺染と種々の方法により、柄柄や横惣、縮などを生産し飛躍的に伸びた。特に、織幅に十文字縞を120個から140個織り出す組み合わせの正確さにより上布の最高級品とされている。

しかし、生活様式の変化で需要が落ち込んでいるが、後継者育成などに努力が続けられている。昭和35年石川県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

역사와 특색

에도시대에는 가시마군이나 하쿠이군의 여성들에 의해 짜여져, 서일본의 넓은 지역에서 판매되었다. 메이지 이후 다양한 기법과 틀의 개발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직물 폭에 십자형 가스리를 120개에서 140개를 정확하게 짜냄으로써, 최고급의 마직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1960년에 이시카와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羽咋市(하쿠이시)、中能登町(나카노토마치)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亀甲縞、十字紋縞(귀갑가스리, 십자문가스리)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山崎麻織物工房(야마자키 마직물 공방) 〒929-1571 羽咋市下曾祢町784(하쿠이시 시모소네마치 오 84) TEL (0767)26-0240 能登上布会館(노토 마직물 회관) 〒929-1604 鹿島郡中能登町能登部下134部1番地 (가시마군 나카노토마치 노토메시모134 부 1번지) TEL (0767)72-2233



歴史と特色

武器として製造されていた火薬が、江戸中期より娯楽に使用されるようになり、花火が生まれたと言われ、金沢においても当時より製造されていたものと思われる。

金沢では、明治以後大正末まで製造されていた。能登地方においては、昭和初期頃まで祭礼に使用するため各地で花火が製造されていたが、押水町に専業として製造するものが現れ、現在に受け継がれている。

豪華な打ち上げ花火を中心として製造され、県内はもとより主に関西、中部地区で打ち上げられている。

역사와 특색

무기로 제조돼 왔던 화약이 에도시대에는 불꽃놀이에 사용하게 되었다. 가나자와는 메이지 이후 다이쇼 말까지 제조되고 있었다. 노토지방에서는 쇼와초기 무렵까지 각지에서 불꽃이 제조되고 있었다. 현재는 노토 오시미즈마치에서 화려한 불꽃이 제조되고 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宝達志水町(호다쓰시미즈초)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打ち上げ花火、スターマイン、仕掛け花火(발사용 불꽃, 스타마인, 대형 불꽃)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能登煙火株式会社(노토엔카(주)) 〒929-1313 羽咋郡宝達志水町字東間3-2 (하쿠이시 호다쓰시미즈초 아자이즈마 라 3-2) TEL (0767)28-2514

能登花火